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 작품 현황과 연구 동향을 중심으로

김신중**

〈차 례〉	
1. 머리말	
2. 작품 현황	
3. 연구 동향	
4. 특성과 의의	
5. 맺음말	

<국문초록>

장흥가사는 장흥 사람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장흥을 배경으로 성립된 가사 작품이다. 이 글은 바로 그러한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연구 대상을 장흥의 전통가사에 한정하였으며, 장흥가사의 범주에 드는 작품 현황 검토 및 연구 동향 분석을 중심으로 목적에 접근하였다. 논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작품 현황이다. 그동안 장흥가사로 취급되어 왔거나 새로 발굴된 작품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장흥가사를 모두 9편으로 분류하였다. <관서별곡>, <천흥가>, <금당별곡>, <임계탄>, <자회가>, <권학가>, <초당곡>, <인일가>, <장한가>가 그것이다. 이어 장흥가사에 대한 연구 동향을 작품에 대한

*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KRF-2008-361-A00006)로서, 그 초고를 2010년 10월 22일 한국 가사문학관의 '제11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에서 「장흥의 가사문학과 그 의의」라는 제목으로 구술 발표한 바 있다.

** 전남대학교

개별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그 결과 장흥가사는 조선 후기의 기행가사·교훈가사·현실비판가사가 주류를 이루면서, 각 유형의 작품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 장흥가사, 조선 후기, 기행가사, 교훈가사, 현실비판가사, 지역 감성

1. 머리말

장흥가사는 장흥 사람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장흥을 배경으로 성립된 가사 작품이다. 따라서 장흥가사는 당연히 장흥 사람의 삶을 담거나, 장흥 지역의 풍물을 노래할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바로 그러한 지역문학으로서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를 밝히는 데 있다. 나아가 이를 통해 장흥 지역 전통적 감성의 일단을 드러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목적 설정은 종래 장흥에서 가사문학이 융성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한 것이며, 이 지역 전통가사 작품만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장흥가사 전반을 논하자면, 맨 먼저 부딪치는 것이 장흥가사의 범주에 드는 작품의 선정과 그 접근 방식에 관한 문제이다. 워낙 논자에 따라 장흥가사를 헤아리는 입장이 다르고, 또 한두 편이 아닌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특성과 의의를 조감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글은 앞에 제시한 개념을 기준 삼아 장흥가사 범주에 드는 작품 현황을 먼저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선정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에 다가가는 방법을 사용하고자 한다. 다루는 내용이 장흥가사 전반에 미치는 것이기에 논의 과정에서 개별 작품들에 대한 미시적 접근은 가급적 피한다.

2. 작품 현황

먼저 장흥가사의 작품 현황이다. 지금까지 발굴 소개된 장흥가사 작품은 모두 얼마나 될까? 비교적 간단해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논자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인다. 이러한 편차는 물론 그것들을 전해주는 문헌 기록의 모호함에서 발생한 측면도 있지만, 종래 가사 양식의 유통상 특성에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 여기서 장흥가사임이 분명한 작품부터 차례로 보기로 한다.

장흥가사의 첫 작품은 <관서별곡(關西別曲)>이다. <관서별곡>은 백광홍(白光弘)이 명종 10년(1555) 평안도 평사가 되어 관서 지방을 두루 돌아보고 그 감흥을 노래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행체 가사의 첫 번째 작품으로도 유명하다. 백광홍의 사후에도 한동안 악부에 올라 가창되었음을 몇몇 기록들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이수광은 『지봉유설』에서 최경창의 <증백광홍구기(贈白光弘舊妓)>를 예로 들며 <관서별곡>이 당시까지도 전창되어 이원의 기녀들이 그것을 들으면 문득 눈물을 흘렸다고 하였으며,¹⁾ 홍만중은 『순오지』에서 관서의 아름다움을 이 한 편에 그려 내었다고 하였다.²⁾

<관서별곡>의 전통을 이어 조선 후기에는 노명선(盧明善)의 <천풍가(天風歌)>와 위세직(魏世稷)의 <금당별곡(金塘別曲)>이 나왔다. <천풍가>는 장흥의 천관산 기행을, <금당별곡>은 완도의 금당도(와 만화도) 기행을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금당도 역시 1896년 완도군이 설치되기 이전에는 장흥도호부에 속한 섬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작품은 관리로서 임지의 기행 체험을 바탕으로 한 <관서별곡>과는 달리, 작자 자신의 향토

1) “崔斯文慶昌(中略) 贈白光弘舊妓曰 錦繡煙霞依舊色 綾羅芳草至今春 仙郎去後無消息 一曲關西淚滿巾 白光弘 曾任平安評事而卒 其所製關西別曲 至今傳唱 梨園諸妓聞輒下淚故云 錦繡煙霞 綾羅芳草 乃其曲中語也”(李暉光, 『芝峯類說』, 卷13, 文章部6, ‘東詩’條)

2) “關西別曲 岐峯白光弘所製 公爲平安評事 歷遍江山之美 騁羈夷夏之交 關西佳麗 寫出於一詞”(洪萬宗, 『旬五志』, 卷下)

기행 사실을 노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행가사 외에도 재지사족들의 향촌 생활을 다룬 일련의 작품들이 조선 후기에 제작되었다. 그것들은 특히 주로 교훈적 내용을 담아 이루어졌는데, 그 작가로 위백규(魏伯珪)와 이상계(李商啓) 및 이중전(李中銓)이 있다.

이 중 장흥이 낳은 실학자로 이미 널리 알려진 위백규는 거의 평생을 향촌에 머무르며 교화와 저술 활동에 힘쓴 인물인데, 그의 소작으로 <자회가(自悔歌)>와 <권학가(勸學歌)>가 전한다. <자회가>는 작자가 자신의 회갑을 맞아 부모의 생전에 불효하였음을 스스로 참회하며 효의 도리를 설교하는 내용이고, <권학가>는 인간 본연의 심성을 잃어 방황하지 말고 열심히 학문에 임하여 성공할 것을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노래이다.³⁾ 두 작품 모두 향리의 동족들을 향한 교화적 목소리가 두드러진다.

또 이상계도 평생을 향촌에서 지낸 선비로,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경계하는 가사를 지었다. <초당곡(草堂曲)>과 <인일가(人日歌)>가 그것이다. <초당곡>은 작자가 나이 오십이 되어 향리에 초당을 세우고 그곳에서 물외의 삶을 즐긴다는 내용의 은일가사이고, <인일가>는 정월 초이레의 인일에 동족들과 모여 놀면서 인륜을 지키고 어진 일을 행하여 사람답게 살 것을 권하며 불렀다는 교훈가사이다. 그런데 이상계의 <초당곡>은 은일가사로 분류되기는 하나, 자신의 한미한 오십 평생을 허망하게 돌아보며 잠기는 회한을 기조로 한다는 점에서 보통의 은

3) 이 <권학가>는 『魏門歌帖』과 가첩 『自悔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위문가첩』에는 그 작자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가첩 『자회가』에는 위백규로 되어 있다. 또 현재 <권학가>라는 이름으로 전해오는 작품만도 수종에 이른다. 때문에 논자에 따라서는 이 작품의 작자를 위백규로 보지 않고 미상으로 취급하기도 한다.(이종출, 『위세보의 「금당별곡」 고』, 『한국고시가연구』, 태학사, 1989, 419쪽 및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 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화문화사, 1995, 312-326쪽 참고) 하지만 이 <권학가>는 그 내용과 길이 등이 다른 작품들과 크게 다르므로, 여기서는 일단 가첩 『자회가』의 기록을 좇아 위백규의 작품으로 처리한다. 이상계의 <草堂曲>과 <人日歌>를 수록한 가첩 『초당곡』에도 작자 미상의 <권학가>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위백규의 <권학가>에 비해 길이가 거의 두 배에 달한다.

일가사와는 그 정서가 다르다.

이중전 역시 이상계와 마찬가지로 인물로, 그가 52세 때 지은 <장한가(長恨歌)>는 자전적 교훈가사이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인생 역정과 향촌 생활의 교훈을 말하였고, 후반부에서 노년의 초당 생활과 금강 유람의 소망을 피력하였다. 자신의 과거를 쓸쓸히 돌아보며 현재의 삶과 미래의 소망을 기술한 자전적 가사로, 이상계의 <초당곡>과 상통하는 바가 있으나 <초당곡>에 비해 교훈성이 더욱 부각되어 있다.

이밖에도 2003년에는 <임계탄(壬癸歎)>이라는 작품이 새로 발굴되어 장흥 가사의 또 다른 면모가 부각되었다. <임계탄>은 영조 8년(1732, 임자)과 9년(1733, 계축)에 걸쳐 장흥 지역을 덮친 대기근의 참상을 고발한 현실비판가사로, 그 작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작품의 내용을 통해 당시 장흥도호부의 관산 지역에 살았던 어떤 비관적 지식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⁴⁾ 작품의 성립 시기는 그동안 현실비판가사의 서두에 놓였던 18세기 말의 <갑민가(甲民歌)>나 <합강정가(合江亭歌)>에 비해 60년가량 앞선다. 이 작품의 발굴로 기행과 교훈 위주의 장흥 가사에 현실비판이라는 주제가 추가되었다.

지금까지 든 장흥의 가사 작품은 모두 9편이다. 이 9편에 대해서도 이견이 전혀 없지는 않으나, 이것이 대체로 장흥가사로 확인되는 작품들이다. 다음 표는 이 작품들을 제작 시기를 좇아 정리한 것이다.

작품	작자	제작 시기	내용	수록 문헌
관서별곡	백광홍(1522~1556)	1555년(명종 10)	기행	기봉집, 필사본 잡가
천풍가	노명선(1647~1715)	17세기 말	기행	위문가첩, 필사본
금당별곡	위세직(1655~1721)	1707년 이전	기행	위문가첩, 가첩 자회가
임계탄	장흥부 관산 사람	1733년 무렵	비판	필사본

4) <임계탄>을 발굴 소개한 임형택은 그 작자가 '1730년대 장흥의 관산에서 생존했던 선비' 중에서도 위백규의 부친인 위문덕(魏文德:1704~1784)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45쪽)

자회가	위백규(1727~1798)	1787년(정조 11)	교훈	위문가첩, 가첩 자회가
권학가	위백규(1727~1798)	18세기 후반	교훈	위문가첩, 가첩 자회가
초당곡	이상계(1758~1822)	1808년 무렵	은일	위문가첩, 죽촌가첩, 필사본, 가첩 초당곡, 지지재유고
인일가	이상계(1758~1822)	19세기 초	교훈	위문가첩, 죽촌가첩, 필사본, 가첩 초당곡, 지지재유고
장한가	이중전(1825~1893)	1876년(고종 13)	교훈	우곡집

여기서 위 표를 보며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이 수록 문헌에 나타나듯 다양한 형태의 문헌 전승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기봉집(岐峯集:1899년 간행)』·『지지재유고(止止齋遺稿:1958년 간행)』·『우곡집(愚谷集:1899년 성책)』이라는 개인 문집과 개별 작품의 필사본은 물론, 『위문가첩(魏門歌帖:연대 미상)』·가첩 『자회가(自悔歌:1959년 간행)』·『죽촌가첩(竹村歌帖:연대 미상)』·가첩 『초당곡(草堂曲:현대 필사)』⁵⁾이라 일컬어지는 여러 작품을 한 데 모은 가첩 형태가 이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개별 작가의 문집이나 필사본보다는 다수 작가의 작품들을 함께 수록한 가첩 전승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는 곧 장흥에서 가사의 향유와 유통이 개별 작품보다는 여러 작품들을 함께 아우른 형태로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종래 장흥에서 가사의 유통과 향유가 그만큼 활발하였다는 뜻이다. 각 가첩에 수록된 가사 작품은 다음과 같다.

- ① 『위문가첩』(8편) : <금당별곡>, <자회가>, <초당곡>, <인일가>, <만고가(萬古歌)>, <천풍가>, <합강정가>, <권학가>
- ② 가첩 『자회가』(3편) : <자회가>, <권학가>, <금당별곡>
- ③ 『죽촌가첩』(5편) : <퇴계선생안택가(退溪先生安宅歌)>, <인일가>, <초당곡>, <상사곡(相思曲)>, <영종대왕처사가(英宗大王處士歌)>
- ④ 가첩 『초당곡』(7편) : <초당곡>, <인일가>, <권학가(異)>⁶⁾, <윤희가

5) 보통 『초당곡전(草堂曲全)』이라 일컬어지는 가첩인데, '전(全)'이라는 말이 가첩 이름이 아닌 '전부(全部)'라는 분량을 의미한다고 보아 여기서는 『초당곡』이라 하였다.

6) 앞에서 위백규의 작품으로 분류한 <권학가>(주3 참고)와는 다른 작품이므로 <권학가(異)>로 구분하였다.

〈闕里歌〉, 〈경독가(耕讀歌)〉, 〈독락가(獨樂歌)〉, 〈담락가(湛樂歌)〉

그런데 이 네 가첩에는 앞의 장흥가사 표에는 들어있지 않은 작품들이 상당수 수록되어 있다. 밑줄 표시를 한 『위문가첩』의 〈만고가〉와 〈합강정가〉, 『죽촌가첩』의 〈퇴계선생안택가〉·〈상사곡〉·〈영종대왕처사가〉, 가첩 『초당곡』의 〈권학가(異)〉·〈궐리가〉·〈경독가〉·〈독락가〉·〈담락가〉의 10편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만고가〉는 영암 사람 박이화(朴履和)가 지은 역사가사이고, 〈퇴계선생안택가〉와 〈궐리가〉는 〈등루가(登樓歌)〉라는 이름으로도 잘 알려진 작자 연대 미상의 교훈가사이다. 따라서 이 셋을 제외한 나머지 일곱 작품이 장흥과의 연고가 분명치 않은 미확인 작품으로 남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미확인으로 남은 일곱 작품의 처리 문제이다. 논자에 따라서는 이 작품들 중의 일부 혹은 전부를 장흥가사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논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합강정가〉이다.

알려지다시피 〈합강정가〉는 가을걷이가 한창인 가운데 순창의 합강정에서 벌인 전라 감사의 호화로운 뱃놀이 행태와 그 폐해를 직설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발굴 소개는 1966년 이종출에 의해 이루어졌는데,⁷⁾ 〈합강정가〉의 여러 이본 중에서도 장흥의 『위문가첩』본을 통해서였다. 따라서 당연히 장흥의 위문에서 그 작자를 찾게 되었고, 마침 만년에 잠시 옥과 현감을 지낸 위백규의 이력에 주목하여 그가 이 작품의 작자일 것으로 추정하였다.⁸⁾ 물론 이와 같은 추정에는 합강정의 소재지가 지금의 전남 곡성군 옥과면 합강리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나온 다른 이본 및 자료들을 통해 보면 당시 전라 감사였던 정민시의 뱃놀이가 정조 16년(1792) 9월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7) 이종출, 「『합강정선유가』고, 『어문학논총』 제7집,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8) 이종출, 「『합강정선유가』 보유, 『한국고시가연구』, 484~487쪽.

또 여기에 위백규가 옥과 현감을 지낸 것이 정조 20년에서 21년 사이였음을 감안하면, 그가 〈합강정가〉의 작자일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4년 전에 있었던 뱃놀이를 직접 목격하지도 않고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낼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⁹⁾ 다만 위백규가 옥과 현감으로 있을 때 이 〈합강정가〉를 접하였고, 그것이 인연이 되어 『위문가첩』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합강정가〉는 장흥의 가사라기보다는 장흥에서 유통된 가사라고 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또 『죽촌가첩』의 〈영종대왕처사가〉는 조선 후기 12가사의 하나인 〈처사가〉의 이본으로 확인되며, 가첩 『초당곡』의 〈권학가(異)〉는 이기원(李基遠)의 〈권학가라〉(필사본 『농가월령』 소재) 이본으로 그 앞부분만 취한 것이다. 나머지 〈상사곡〉·〈경독가〉·〈독락가〉·〈담락가〉에 대해서는 아직 그 이본들을 확인하지 못하였다.¹⁰⁾ 하지만 〈합강정가〉나 〈영종대왕처사가〉 및 〈권학가〉의 예에서 보듯 이 작품들을 장흥 사람의 소작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관습성 짙은 내용으로 미루어 어느 한 작가의 순수한 창작물이기보다는 비슷한 유형의 작품들이 유통 향유되는 과정에서 파생된 이본이거나 개작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들 역시 장흥의 유통 가사라 할 수 있다.¹¹⁾

이밖에 문계태(文桂泰:1875~1955)의 〈덕강구곡가(德岡九曲歌)〉와 〈덕천심원가(德泉源歌)〉라는 작품을 장흥가사에 넣기도 하나, 이 두 작품 모두 외형상 4음 4보의 율격을 갖춘 글이 아니기에 가사와는 거리가 멀다.

9) 위백규가 옥과 현감으로 부임할 당시 전라 감사로는 정민시에서 권엄과 이서구를 거쳐 서정수가 재임하고 있었다.(『전라남도지』 제11권,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4, 56쪽 참고)

10) 〈상사곡〉은 작자 미상의 달거리 노래인 〈관등가(觀燈歌:일명 月令相思歌)〉와 그 모습이 유사하나 동일한 작품은 아니다.

11) 넓게 보아 장흥의 유통 가사도 장흥가사에 준하여 논의할 수 있겠으나, 이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장흥가사에서는 지역적 독자성을, 장흥의 유통 가사에서는 장르적 보편성을 보다 의식하게 된다.

3. 연구 동향

지금까지 이루어진 장흥가사에 대한 연구 동향이다.¹²⁾ 여기서 이를 장흥가사 작품에 대한 개별적 접근과 지역적 접근으로 나누어 정리한다. 그중 작품의 개별적 접근에서는 새로운 작품의 발굴 소개 및 연구가 해당 작품별로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지를 살핀다. 특히 초기 연구에서 밝힌 작품의 발굴 경위, 수록 문헌, 작자 추정 등과 아울러 연구가 진행되면서 작품의 성격이 어떻게 이해되었는가에 유의할 것이다. 또 작품의 지역적 접근에서는 장흥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배경을 의식하고 행해진 몇 연구의 개요를 정리한다. 그런데 여기에 속한 연구들은 대체로 논의의 가장 큰 관심을 장흥가사의 범주 문제에 두었다.

(1) 작품의 개별적 접근

앞에 든 장흥가사 9편 중 조선시대에 다른 지역까지 널리 알려져 가창되고 찬사를 받은 작품은 <관서별곡>이다. 즉 <관서별곡>은 장흥가사의 첫 작품이자,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했던 작품이다. 그런데 전승 과정에서 <관서별곡>의 우리말 가사는 한동안 그 모습을 감추었다가 1963년에야 비로소 학계에 알려졌다. 때문에 한때 <기성별곡(箕城別曲)>과 <향산별곡(香山別曲)>을 합한 필사본이 곧 이 작품이 아닐까 추정되기도 하였으며(이주홍:1955), 일부 국문학사나 개론 등의 저술에서는 그 작자를 백광홍이 아닌 백광훈(白光勳)으로 오인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이상보(1963)는 『기봉집』에 수록된 <관서별곡> 원사를 찾아 그 존재를 처음으로 학계에 알리며 종래의 잘못된 견해들을 바로잡고 이 작품 연구의 초석을 놓았다. 특히 수록 문헌과 작자 및 작품에 대한 세밀한 고찰을 통해 <관서별곡>이 정철(鄭澈)이 지은 <관동별곡(關東

別曲)>의 모체였음을 주장하였다. 이것이 곧 <관서별곡>뿐만 아니라, 장흥가사 연구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또 김동욱(1965)은 기봉집본과 잡가본(雜歌本)의 이본 대비를 통해 잡가본에 보다 고품이 유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후 <관서별곡> 연구는 주로 그것이 기행가사라는 점을 주목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면서도 많은 연구가 <관서별곡> 자체보다는 다른 후속 작품들과의 영향 관계 해명을 통해 그 문학사적 의의를 찾고자 하였다(고경식:1967, 이병기:1975, 지중옥:1985, 정익섭:1987, 김성기:2004 등). 정철의 <관동별곡>을 비롯하여, 이현의 <백상루별곡(百祥樓別曲)>, 조우인의 <출관사(出關詞)>와 <관동속별곡(關東續別曲)>이 <관서별곡>과 대비된 작품들이다. 이밖에 최강현(1982, 2000)은 기행문학의 전반적인 면모를 아우르며 그 속에서 <관서별곡>의 위치를 조명하였다. 최근에는 그 공간 인식에 주목하여 그것이 자연·풍류의 공간인 산수, 초월·상상의 공간인 선경, 이념·도덕의 공간인 현실로 형상화되었다고 본 연구도 나왔다(박수진:2009).

<관서별곡>에 이어 『위문가첩』의 발굴은 장흥가사 연구의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 가첩에 수록된 8편의 가사 중 <만고가>와 <합강정가>를 제외한 6편이 장흥가사이기 때문이다. 노명선의 <천풍가>, 위세직의 <금당별곡>, 위백규의 <자회가>와 <권학가>, 이상계의 <초당곡>과 <인일가>가 그것이다. 앞의 ‘작품 현황’에서 확인한 장흥가사 9편 중 무려 6편이 이 가첩을 통해 전승되고 있어 그 소중한 가치를 짐작케 한다. 장흥군 관산읍 방촌리 위세보(魏世寶:1669~1707)의 종손가에 전해져 온 『위문가첩』이 발굴 소개된 것은 1966년 이종출에 의해서였다.¹³⁾ 발굴 당시 표제가 없어 이종출이 위세보의 호를 따 『삼족당가첩(三足堂歌帖)』이라 이름하였으나, 이 가첩에 실린 대부분의 작품이 위세보 사후인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엽에 지어진 것이라 하여 김석희(1995)가 다시 『위문

12) 여기서 언급하는 장흥가사에 대한 연구 논저의 목록은 이 글의 참고문헌에 일괄 제시한다.

13) 이와 같은 시기에 이종출은 이상계의 작품이 수록된 가첩 『초당곡』도 발굴 소개하였다.(이종출, 「지리지 이상계의 가사고」, 『한국고시가연구」, 444~445쪽)

가첩』으로 고쳐 붙였다.

이렇듯 『위문가첩』이 이종출에 의해 발굴 소개되었기에, 여기에 수록된 작품들의 연구 역시 이종출에 의해 시작되었다. 먼저 <관서별곡>의 뒤를 이은 기행가사 <천풍가>와 <금당별곡>에 대한 연구이다. 이 두 작품은 처음 발굴 소개될 당시 관련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각각 제작 시기와 작자 추정에 착오를 거쳤다. <천풍가>는 작자인 노명선의 생몰 연도가 사실보다 60년이 늦게 파악되면서 그 제작 시기도 18세기 중엽일 것으로 생각되다가(이종출:1966), 이후 최강현(1982, 2000)에 의해 바로잡히면서 17세기 말에 지어진 작품으로 자리매김 되었다. 또 <금당별곡>은 『위문가첩』의 기록을 좇아 처음에는 그 작자가 위세보거나 위백규일 것으로 추정되었으나(이종출:1967), 나중에 위세보의 『석병집(石屏集)』 기록을 근거로 그의 삼종형인 위세직으로 수정되었다(이종출:1973).

그런데 <천풍가>와 <금당별곡>은 같은 지역 작가에 의해 이루어진 기행가사이기에 같은 자리에서 대비되어 논의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예로 김석회(1995)는 <금당별곡>에 유교적 이념이 완전히 탈색된 순수한 유람 취향만이 드러나고 있는 데 비해, <천풍가>에는 이러한 유람 취향에 지은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존재에 관한 번민과 자의식이 상호 간섭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견해는 <천풍가>를 <금당별곡>보다 후대인 18세기 중엽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김석회와 달리 이지영(1997)은 두 작품에 나타난 유람 체험과 양상의 대비를 통해 두 작품의 이러한 차이가 제작 시기상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작자의 의식상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보았다. 또 박일용(1996)은 현실적 소외 의식을 탈피하기 위한 <금당별곡>의 선유 체험이 결국은 내면적인 좌절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으며, 유정선(1997)은 18세기에 들어 기행가사가 사실상 정치 묘사로 나아가는 것과는 달리 <천풍가>는 현실도피적 의식에서 비롯된 관념적인 정치 묘사를 보여준다고 하였다. 나아가 이 두 작품에 관인이 아닌 처사로서 자기 고장을 현양하고자 하는 의식이 표출되어 있으며, 이는 은거의 명분 의식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유정선:1999). 이밖에 <관서별곡>까지 포함하여 장흥 기행가사 세 작품의 공간 인식과 그 문화적 배경을 살핀 연구(박수진:2009)도 있다.

다음 위백규의 <자회가>와 <권학가>이다.¹⁴⁾ 이 두 작품은 이종출(1973)에 의해 소개된 이후 김석회가 특별한 관심을 표명한 것 외에는 아직 별다른 연구가 보이지 않는다. 김석회는 <자회가>를 18세기의 가부장제적 질서가 깨어지는 탈성리학적 생활 현실 속에서 현실을 그러한 질서 속에 묶어두기 위해 이루어진 ‘참회의 서정’을 옷 입힌 교술로 이해하였으며(1992), <권학가>가 다른 권학가류와 구별되는 변별적 개성을 연소층의 반학문적 풍조(遊食·遊樂)에 대한 개탄과 경계라는 주제적 관심에서 찾았다(1995).

이상계의 <초당곡>과 <인일가>의 연구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종출(1966, 1989)에 의해 작품이 소개되면서 발굴 경위·수록 문헌·작자·작품에 대한 고찰이 있었는데, 그는 여기에서 이상계가 “전심성학하는 도덕적 관념에서 인일가를 짓게 되었고, 금서자오(琴書自娛)하는 은일적 내지는 풍류적 관념에서 서정적인 초당곡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 나아가 김석회(1995)는 <초당곡>이 겉으로는 은일가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은 자신의 직임(職任)이나 직역(職域)에 대한 확신을 상실한 19세기 초반 향촌 세거 사족의 삶과 의식을 드러내었다고 하였다. 또 <인일가>를 위백규의 <자회가>와 마찬가지로 향촌 사족 층의 저락한 사회경제적 여건 속에서 동요하는 가정 윤리를 가부장제적 질서로 재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았다.

이상의 『위문가첩』 수록 작품들과 달리 이종전의 <장한가>는 1980년대에야 발굴 소개된 작품이다. 당시 정익섭(1986)에 의해 수록 문헌 및 작자와 작품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있었다. 정익섭은 특히 작품의 제작 동기를 “作者의 人生觀 내지 思想을 펴보려는 의도와 제자와 자손들에게 敎訓과 警世의 표本으로 삼고자 한 것”에서 찾았는데, 후자에 보다 비중

14) <권학가>의 작자 문제에 이견이 있음은 이미 앞의 주3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을 두었다.

또 최근 임형택에 의해 발굴 소개된 <임계탄>은 “현실비판가사로서 가장 이른 시기에 출현한 작품이라는 사실이 주목될 뿐 아니라 최대의 성과라고 평가”된다(임형택:2003, 2005). 보다 구체적으로는 작품에 드러난 살인적인 자연 재해와 인재로서의 폭정에 시달린 18세기 전반의 농민 현실, 그리고 조선 후기 현실비판가사의 전개와 관련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이형대:2003, 채현석:2008).

(2) 작품의 지역적 접근

장흥이라는 지역적 배경을 의식하고 행해진 첫 번째 연구는 정익섭(1963)에서 볼 수 있다. 정익섭은 넓게는 호남의 가사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장흥의 역사 및 자연 환경과 관련지어 <관서별곡>을 살폈다. 특히 작자가 일찍부터 탐진강과 제암산을 비롯하여 천관산·가지산·용두산·사자산·역불산 등의 고향 승경과 접하며 쌓은 시가에 대한 조예에서 <관서별곡>이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때에는 장흥가사로 확인된 작품이 아직 <관서별곡> 1편에 불과하였기에 다른 작품들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이후 지역적 접근을 시도한 다른 연구들도 대개 이러한 장흥의 역사 및 자연 환경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어서 다시 장흥가사에 대한 지역적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류연석(1994)에 의해서였다. 류연석은 전남의 가사문학을 살피면서 장흥의 전통가사로 <관서별곡>·<천풍가>·<금당별곡>·<자회가>·<권학가>·<초당곡>·<인일가>·<장한가>의 8편과 함께 <합강정가>를 위백규의 작품으로 보아 들었으며, 현대가사 작가인 고단(1922~)의 <소고당가(紹古堂歌)>와 <평화사시가(平和四時歌)> 등도 거론하였다. <임계탄>은 아직 발굴 전이라 언급하지 않았다. 김성기(1995) 역시 류연석과 같이 장흥의 전통가사 9편을 거론하며, 특히 장흥의 자연 환경과 <관서별곡> 중심의 논술을 펼쳤다. 또 김신중(2001)은 전남의 고시가를 개관하며 작자가 불분명한 <합강정가>를 제외한 8편을 장흥가사로 분류하였다.

그러는 동안 장흥가사 작품을 한데 모은 『장흥의 가사문학』이라는 책이 김석중·백수인(초판 1997, 증보개정판 2004)에 의해 나왔는데, 이 책(2004)에서 취급하고 있는 전통가사 작품은 무려 18편에 이른다. 앞의 ‘작품 현황’에서 표로 정리한 9편 외에도 『위문가첩』의 <합강정가>, 『죽촌가첩』의 <상사곡>·<영종대왕처사가>, 가첩 『초당곡』의 <권학가(異)>·<경독가>·<독락가>·<답락가>, 문계태의 <덕강구곡가>·<덕천심원가>가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작품들에 대한 검토는 이미 앞에서 행한 바 있거니와, 이 책이 장흥에서 유통된 작자 연대 미상의 작품 및 의외상 가사 율격을 갖추지 못한 작품까지를 모두 장흥가사에 포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장흥가사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작품의 개별적 접근에 있어서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에 이상보, 이종출, 정익섭, 임형택의 업적이 큼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이종출에 의한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두드러진다. 연구를 시작하며 일부 작품의 경우 작자나 제작 시기 추정에 착오를 보이기도 하였다. 작품별로는 조선 전기의 <관서별곡>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의 <천풍가>·<금당별곡>·<임계탄>에 대한 연구가 얼마간 이루어졌다. 나머지 작품들에 대한 접근은 미미한 편이다. 연구자들의 관심은 주로 <관서별곡>의 경우는 기행가사적 성격과 다른 후속 작품들과의 영향 관계에, 조선 후기 가사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이루어진 재지 사족들의 향촌 생활과 의식 세계 및 당시의 농민 현실에 주어졌다. 또 지역적 접근에서는 장흥가사의 범주를 놓고 작자 연대 미상의 작품 처리에 이견이 있음을 보였다.

4. 특성과 의의

이제 여기서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를 정리해 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현전하는 전남 전통가사의 지역적 분포부터 살핀다.

지역	순천	담양	고흥	영암	장흥	나주	보성	해남	강진	진도	장성	완도	화순
조선 전기(10)			1	6	1	1	1						
조선 후기(39)	12	3	8	3	2	2	3	1	3	1	1		

위는 발표자가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지역 연고가 분명한 개화기가사 이전 작품만을 분류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수치는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나 기존 자료의 취급 방식에 따라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이 분포를 통해 과거 전남에서의 가사문학 활동 윤곽을 대략이나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적 연고가 확인된 가사 49편 중 담양에 18편의 가장 많은 작품이 분포하며, 장흥이 9편으로 그 다음이다. 종래 담양과 장흥에서 가사문학 활동이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시기별로는 조선 후기에 대부분의 작품이 분포한다. 담양가사가 조선 전기에도 그런대로 작품이 분포한 반면, 장흥가사는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한편 류연석은 전남의 가사문학을 논하는 자리에서 그 내용으로 강호한정, 연주충군, 유람기행, 도덕교훈 등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였다.¹⁵⁾ 이에 비추어 장흥가사는 ‘2. 작품 현황’의 표에서 보듯 유람기행과 도덕교훈이 중심이 되고 있으며, 조선시대의 보편적 주제인 강호한정과 연주충군이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¹⁶⁾ 현실비판이라는 보기 드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가 드러난다. 즉 조선 후기의 기행가사와 교훈가사 및 현실비판가사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과, 그것들이 각

15)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181쪽.

16) 은일가사로 분류한 이상계의 <초당곡>이 강호한정에 가까우나, 지나온 삶에 대한 회한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순수한 강호한정과는 거리가 있다.

각 문학사에서 갖는 특별한 의미가 그것이다.¹⁷⁾

먼저 기행가사는 크게 관유가사와 사행가사로 분류된다. 그리고 관유가사는 다시 작자가 ‘외직에 관리로 부임해서 이루어지는’ 환유가사(宦遊歌辭)와, ‘개인적인 동기로 유람하는’ 유람가사(遊覽歌辭)로 구분할 수 있다.¹⁸⁾ 그런데 범상치 않게 <관서별곡>은 환유가사의, <천풍가>(또는 <금당별곡>)는 유람가사의 첫머리에 놓인다.¹⁹⁾ 이는 곧 장흥의 기행가사가 한국 기행가사의 형성과 발전을 이끌어왔음을 의미한다. 장흥의 지역성을 의식한 연구들에서 이미 지적해 온 바와 같이 그것은 또한 장흥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람가사의 첫 작품인 노명선의 <천풍가>(또는 위세직의 <금당별곡>)가 국내의 다른 지역 명승이 아닌 작자 자신의 향토 기행 유락을 노래하였다는 점이 그렇다. 이것이 바로 장흥가사가 갖는 첫 번째 의의이다.

다음으로, 교훈가사와 현실비판가사는 재지사족들의 향촌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조선 후기의 향촌 사회는 18세기를 지나며 많은 문제를 드러낸다. 특히 재지사족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 흔들리게 되었다. 사회적으로 그동안 공고하게 자리를 지켰던 가부장제적 유교 윤리가 도전을 받았고, 경제적으로는 더 이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던 것이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향촌 사족들의 대응이 교훈가사와 현실비판가사의 등장을 견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교훈가사가 향촌 내부 구성원들을 향한 인애에서 비롯된 교화의 목소리를 담았다면, 현실비판가사는 외부의 억압을 향한 분노에서 비롯된 비판의 목소리를 담았다.

17) 장흥가사의 이러한 특성은 담양가사가 조선 전기에 보다 의미 있는 작품들이 분포하며, 강호한정과 연주충군의 내용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과 대조적이다.

18)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1~13쪽 참고.

19) 같은 시기의 유람가사로 1704년에 지어진 권섭(權燮)의 <영삼별곡(寧三別曲)>이 있는데, <천풍가>와 <금당별곡>의 제작 연도가 분명하지 않아 현재 그 선후 관계를 정확히 따질 수는 없다.

장흥 교훈가사의 경우, 위백규의 <자회가>와 이상계의 <인일가>는 점점 회박해지는 가정 윤리와 인륜에 대한 경계이며, 위백규의 <권학가>는 학문을 경시하는 부박한 사회 풍조에 대한 개탄이다. 또 한미한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지은, 이상계의 <초당곡>과 이중전의 <장한가>에도 유사한 교화의 목소리가 실려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작품들의 독자는 당연히 가족이나 동족 혹은 제자와 같은 향촌 구성원이 되며, 그 유통 범위 역시 대개 향촌 사회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장흥가사가 주로 문중에 유통된 가첩에 의해 전승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렇듯 조선 후기 향촌 사회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장흥가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비해 현실비판가사인 <임계탄>에는 경제적으로 피폐한 향촌의 현실이 생생히 그려져 있다. 물론 이러한 향촌 현실은 직접적으로는 대기근이라는 자연 재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재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나라의 제도나 관리의 잘못도 크다. <임계탄>에 담긴 비판의 목소리는 이런 외부의 억압을 향한 분노의 표출이었다. 지금 우리가 <임계탄>의 작자를 알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이 당시 권력에 대해 위협한 내용을 담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임계탄>이 현실비판가사의 첫머리에 놓이면서, 최대의 성과로 평가된다는 데 문학사적으로 또 하나의 커다란 의의가 있다. 보다 후대에 순창에서 있었던 일을 비판한 <합강정가>가 장흥에서 유통되었다는 사실 역시 <임계탄>을 낳은 장흥의 비판적 지역 감성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동학농민혁명이 특히 장흥에서 최후까지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것도 마찬가지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를 밝히기 위해 마련되었다. 따라서 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해 먼저 현전하는 장흥가사의 작품 현황을 점검하고, 이어 지금까지의 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서별곡>을 포함한 9편의 작품을 장흥가사로 분류하였으며, 기타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작품들에 대해서도 그 성격을 살폈다. 또 9편 작품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통해서도 연구자들의 관심이 주로 <관서별곡>의 경우에는 기행가사적 성격과 다른 후속 작품들과의 영향 관계에, 그 나머지는 조선 후기 향촌 사족들의 의식 세계 및 당시의 농민 현실에 주어졌음을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장흥가사의 특성으로 조선시대의 보편적 주제인 강호한정과 연주층군이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기행가사·교훈가사·현실비판가사가 주류를 이룬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각 유형에 속한 작품들이 모두 나름대로의 문학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그런데 기행가사·교훈가사·현실비판가사는 유람과 교화 및 비판 행위를 통해 작품이 성립한다. 또 이 세 가지 행위를 촉발시키거나, 그것들이 환기시키는 대표적 정서가 바로 유락과 인애와 분노이다. 따라서 장흥의 전통적 지역 감성과 관련하여 이러한 정서가 개별 작품들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이 남은 과제이다.

참고문헌

- 이주홍, 「관서별곡」, 『국어국문학』 제13호, 국어국문학회, 1955.
- 이상보, 「관서별곡연구」, 『국어국문학』 제26호, 국어국문학회, 1963.
- 정익섭, 「호남지방의 가사고(其一)」, 『진남대학교 논문집』 제9집, 1963.
- 김동욱, 「「관서별곡」 攷異」, 『국어국문학』 제30호, 국어국문학회, 1965.
-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33호, 국어국문학회, 1966.
- 이종출, 「「합강정선유가」고」, 『어문학논총』 제7집,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 이종출, 「자료:권학가·궐리가·경독가·독락가·담락가」, 『어문학논총』 제7집, 조선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66.
- 이종출, 「「천풍가」 해제」, 『한국언어문학』 제4집, 한국언어문학회, 1966.
- 이종출, 「위세보의 「금당별곡」고」, 『국어국문학』 제34·35합번호, 국어국문학회, 1967.
- 고경식, 「「관서별곡」과 「출판사」」, 『국어국문학』 제36호, 국어국문학회, 1967.
- 이종출, 「위백규의 가사 「자회」에 대하여」, 『사대논문집』 제4집, 조선대학교, 1973.
- 이병기, 「관서별곡·관동별곡·관동속별곡의 형태적 고찰」, 『국어문학』 제17집, 국어문학회, 1975.
- 최강현, 『한국 기행문학 연구』, 일지사, 1982.
- 지종욱, 「기행가사특징고」, 『인문과학』 제2집, 목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85.
- 정익섭, 「우곡의 「장한가」고」, 『한국언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 이상보, 「백광홍의 관서별곡」, 『기봉집』,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 1987.
- 정익섭, 「관서별곡과 조선조 가사문학」, 『기봉집』, 전국시가비건립동호회, 1987.
- 이종출, 『한국고시가연구』, 태학사, 1989, 419, 444-445, 484-487쪽.
- 김석희, 「존재 위백규의 생활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181쪽.
- 김석희, 「『위문가첩』을 통해 본 조선후기 호남지방 향촌사족층 문학의 사회적 성격」,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312, 326쪽.
-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 박일용, 「「금당별곡」에 그려진 선유체험 양상과 그 의미」, 『한국기행문학작품연구』, 최강현 엮음, 국학자료원, 1996.
- 이지영, 「기행가사 <금당별곡>과 <천풍가>의 대비적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9집, 한국언어문학회, 1997.
- 유정선, 「<천풍가> 연구」, 『이화어문논집』 제15집,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언어문학연구소, 1997.
- 김석중·백수인 편저,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1997(초판).
- 유정선, 「18·19세기 기행가사의 작품세계와 시대적 변모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9, 11-13쪽.
- 최강현, 『한국 기행가사 연구』, 신성출판사, 2000.
- 김석중·안황권 편저, 『존재 위백규의 사상과 철학』, 도서출판 삼보아트, 2001.
- 김신중, 「남도 고시가 약사」,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
- 임형택, 「신발굴 자료를 통해본 가사의 재인식」, 『민족문학사연구』 제

22호, 민족문화사학회, 2003.

이형대, 「18세기 전반의 농민현실과 「임계탄」, 『민족문화사연구』 제 22호, 민족문화사학회, 2003.

김성기, 「백광홍의 관서별곡과 기행가사」, 『고시가연구』 제14집, 한국 고시가문학회, 2004.

김석중·백수인 편저,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2004(증보개정판).

임형택, 『옛 노래, 옛 사람들의 내면풍경』, 소명출판, 2005, 45쪽.

채현석, 「조선후기 현실비판가사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박수진, 「<관서별곡>에 나타난 공간인식」, 『동방학』 제16집, 한서대학교 동양고전연구소, 2009.

박수진, 「장흥지역 기행가사의 공간인식과 문화양상」, 『은지논총』 제23권, 은지학회, 2009.

투고일 : 2010년 12월 6일, 심사 : 2011년 1월 17일~ 2월 11일, 게재확정 : 2월 15일

<Abstract>

The features and significances of Jang-heung Gasa
- Focused on statue of work and studies in present

Kim, Shin-chung

Jang-heung Gasa is one of the Gasa written by Jang-heung people or setting Jang-heung. The purpose on this article is to say the features and significances about Jang-heung Gasa. Therefore, I limited research topic to traditional Jang-heung Gasa and came at it focused on the analysis of statue of work and trends of studies. Major discussions are as below.

First, I focused on status of works. I classified Jang-heung Gasa in nine pieces by examining works both regarded as Jang-heung Gasa up to now and found newly. Those are <Gwan-seo-byeol-gok>, <Cheon-pung-ga>, <Geum-dang-byeol-gok>, <Im-gye-tan>, <Ja-hoe-ga>, <Gwon-hak-ga>, <Cho-dang-gok>, <In-il-ga>, <Jang-han-ga>. Also I considered on trends of studies in two aspects of individual and local approaches on works. I found out that each type of works has literal importance because the Travel Gasa, Didactic Gasa and Reality-criticism Gasa became main stream in the late Joseon Dynasty.

Key words : Jang-heung Gasa, The late Joseon Dynasty, Travel Gasa, Didactic Gasa, Reality-criticism Gasa, Local emotion